

■ 해방철학 선언문(1973)

엔리케 두셀

해방철학 선언문이라고 번역한 이 글은 1973년에 출판된 『라틴아메리카 해방철학을 향하여』(Hacia una filosofía de la liberación latinoamericana, Bonum, Buenos Aires)라는 제목의 책 뒷표지에 실린 글로, 원제를 곧이곧대로 옮긴다면 ‘해방철학 선언문을 갈음하여’ (A la manera de manifiesto) 정도가 된다. 『라틴아메리카 해방철학을 향하여』라는 책은 엔리케 두셀을 비롯하여 15명의 아르헨티나 철학자들 글을 한데 모은 편저이다. 따라서 해방철학 선언문은 16인의 공동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엔리케 두셀 (Enrique Dussel)의 집필로 간주한다 — 옮긴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유형의 철학적 사유가 라틴아메리카에서 탄생했다. 이 철학은 자아, 정복하는 자아, 생각하는 자아, 제국주의적 유럽의(미국과 러시아도 근대 유럽인의 연장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권력 의지로서 자아에서 출발한 사유가 아니다. 외려 억압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현재 지구상의 종속 국가에서 출발한 사유이다. 유럽의 근대성 철학은 원주민(indio), 아프리카인, 아시아인을 대상(對象)으로, 존재물로 만들었다.

해방철학은 강압적인 남성중심주의 체계, 지배적인 교육 체계, 억압적인 정치 체제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타자의 외재성으로부터 사유하고자 한다. 사유 자체의 인식론적 제 조건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철학, 억압과 종속의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제 조건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철학은 해방철학이 될 수밖에 없다.

라틴아메리카에서(머지않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철학은, 억압된 자를 감추는 철학을 파괴하는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은 해방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설적이기도 하다.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이, 국제 관계·국내 관계·개인 관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인간적인 미래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범주들을 명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방철학은, 사유에 앞서 정치적·교육적·성애적 조건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조건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리하여 추상적인 존재론은 기원이 아니라 ‘제1 철학’의 면모를 띠게 된다.

우리들에게 해방철학은 유일하게 가능한 라틴아메리카 철학이다. 바꿔 말해서,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철학이다. 자신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철학적 사유,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해방과 설명을 하지 않는 철학적 사유는 이제—미래에는 더더욱—, 퇴폐적이고, 피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은폐적이고, 불필요한 사유이다.

[박병규 옮김]

엔리케 두셀 - 라틴아메리카 해방철학 주창자. 멕시코 자치국립대학교(UNAM) 윤리학과 정치철학 교수. 유럽중심적인 근대성이 억압한 타자의 해방을 추구한다.

이 글을 옮긴 박병규는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이다.
